### '가을'하면 '시인 김현승'



미학적 시세계…현대 문학사 대표 기념사업회, 24일 '다형문학잔치' 2년만에 재개…작품·시 세계 추억 축하 음악…다형 문학정신 등 조명

폭염와 폭우, 코로나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어김 없이 계절은 가을을 향해 치닫고 있다. 들녘의 곡식 은 노랗게 익어가고 과일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 다. 비록 지치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가을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가을이면 우리에게 소리없이 다가오는 시인이 있다. 고독의 시인, 눈물의 시인, 커피의 시인 다형 김현승. 광주 양림동이 키운 김현승은 현대 문학사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한국의 엘리어트'라는 수사는 그의 시가 내재하고 있는 지성적이며 미학적인 세계를 대변한다.

다형 김현승 시인의 작품과 시 세계를 기리는 문 학잔치가 열린다.

다형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회장 장정식-이하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2022다형문학잔치'가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광주 서구 풍암지구 회재로 905) 다목적 홀에서 열린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다형 문학 축제가 2년여 간 열리지 못했다. 오랜만에 재개되는 다형 문학 잔치는 문학인은 물론 문학 애호가, 시민들에게 모처럼 시를 매개로 추억을 되새기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학잔치는 총 3부로 나뉘어 약 두 시간 동 안에, 제1부 기념식, 제2부 시와 축하음악, 제3부 학술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축하음악은 소프라노 김에셀이 '연'을 부르고 바리톤 정찬경이 '그대 창 밖에서'를 부른다. 이어 두사람이 이중창으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중 'all ask you'를 부른다.

이번 학술발표는 광주대 이은봉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형승 시인이 타계 전에 가르쳤던 애제자로 알려진 이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에 관해 들려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교수는 '김현승 시인의 정신 차원'을 주제로 시적 사상이나 정신을 조명할 예정이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스승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을 엮어 만든책 '김현승 시의 정신 차원'을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기념사업회의 숙원사업이던 양림 동 다형 삶터 확보문제는 광주 남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매입해 '김현승 문학 공원'을 한창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를 계기로 양림동일대에 산재해 있는 문화인물 기 념관들과 함께 김현승 시인을 기리는 공간조성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구전되는 '서구 마을이야기' 아시나요

서구문화원, 30일까지 공모

광주의 서구는 광주정신의 뿌리가 되는 눌재 박상 선생을 비롯해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삽봉 김세근, 회재 박광옥 등 많은 선혈들의 의로운 마음이담긴 이야기가 많다. 일례로 금당산에는 김덕령 장군과 옥녀의 사랑이야기가 있고, 매월동에는 동물들의 말을 알아들은 주역각시의 이야기가 오래도록입으로 전해내려 오고 있다.

광주 서구문화원이 광주 서구의 마을 이야기를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 서구의 지명이나 역사, 전설, 인물에 관한 새로운 창작 이야기면 된다. 아울러 민담을 비롯해 속담, 노래 등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 도 가능하다. 기존의 알려진 이야기를 새롭게 각색 하거나 창작한 이야기이면 가능하다.

초·중·고는 물론 대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자격제한은 없다. 11포인트 크기로 A4 1장 내외 (2000~3000자)로 쓰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구문화원 누리집(http://gjsgcc .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요즘 K팝은 '2Minutes'

갈수록 짧아지는 노래 길이 4→3→2분 러닝타임 줄어 전주 생략되는 노래 많아 숏폼 콘텐츠・음악 방송 맞춤형

(여자)아이들의 '톰보이' (TOMBOY),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LOVE DIVE), 싸이의 '댓댓' (That That) 등 올해 K팝 최고 히트곡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노래 길이가 3분을 넘지 않는 2분대의 짧은 곡이라는 점이다. 지난 수년간 K팝의 근 간을 이루는 댄스곡의 길이가 눈에 띄게 점점 짧아지고 있다.

19일 써클차트에 따르면 올해  $1\sim 8월$  디지털 종합차트 누적 기준 '톱 10'에 이름을 올린 댄스곡은 (여자)아이들의 '톰보이' (1위),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3위)·'일레븐' (ELEVEN·7위), 싸이의 '댓댓' (8위), 태연의 '101 '101 '102 '103 등 총 5곡이다.

써클차트(옛 가온차트) 디지털 종합차트는 스트리밍, 다운로드, BGM 판매량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차트로, 그해 히트곡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올해 '톱 10'에 이름을 올린 댄스곡들의 길이를 살펴보면 '톰보이' 2분 54초를 비롯해 '러브 다이브' 2분 57초, '일레븐' 2분 58초, '댓댓' 2분 54초로 모두 2분대에 머물렀다. 이가운데 'INVU'만 3분 24초로 유일하게 3분을 넘겼다.

5년 전인 2017년 써클차트 디지털 종합차트에서 '톱 10'에 이름을 올린 댄스곡을 보면 트와이스의 '낙낙' (Knock Knock·8위) 3분 15초, 위너의 '리얼리 리얼리' (REALLY REALLY 10위) 3분 23초로 모두 3분대 초·중반이어다

시간을 더욱 거슬러 올라가 10년 전인 2012 년을 살펴보면 같은 차트 '톱 10'에 들어간 댄 스곡들은 싸이 '강남스타일' (1위) 3분 42초, 씨스타 '나혼자' (3위)•'러빙유' (Loving U•4 위) 각각 3분 26초·3분 38초, 빅뱅 '판타스틱 베이비' (FANTASTIC BABY•5위) 3분 52



초 등으로 지금보다 1분 가까이 길다.

결국 지난 10년간 히트곡의 노래 길이가 4분에 육박하던 것에서 2분대 후반으로 25%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를 두고 한 가요계 관계자는 "2009년 데뷔한 걸그룹 포미닛의 팀명이 '4분 안에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의미였던 것 을 돌이켜보면 지난 10여 년간 분위기가 정말 변하긴 했다"고 말했다.

'아이돌의 조상' 이라 할 수 있는 그룹 H. O.T. 출신 가수 강타는 최근 신보 발매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H.O.T.가 데뷔한) 16년 전과 비교하면 곡들이 엄청 짧아졌다"며 "짧은 파트 안에서도 곡이 지루해지지 않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해야 한다. 곡의 기승전결도 중요하지만 짧은 시간에임팩트를 보여드릴 수 있는 지가 중요해진점이 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2010년대 초반 4분 안팎의 노래 길이도 1990년대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것이기는 하다. 2000년대 후반 유료 음원 사이트 이용이 정착되면서 무료 미리듣기 1분안에 주요 멜로디와 후렴까지 넣어야 청자의 관심을 흡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요계에서는 여기에 더해 최근 몇 년간 노래 길이가 더욱 짧아진 것을 두고는 신곡 홍 보에 필수 코스로 떠오른 틱톡·유튜브 쇼츠 등 숏폼 콘텐츠의 부상을 꼽는다. 노래를 각인시 키는 시간이 기존 미리듣기 1분에서 틱톡 수십 초로 줄어든 것이다.

한 대형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틱톡이나 유 튜브 쇼츠는 아이돌 음악의 주 소비층인  $10^{\sim}$ 



20대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수단" 이라며 "이 세대는 조금만 노래가 길어도 지루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짚었다.

노래 길이가 짧아지면서 가장 크게 '가위 질' 당한 부분은 바로 전주다. 2012년 씨스 타의 '나혼자'에서 볼 수 있던 긴 전주는 근 래 찾아보기 어렵고 2~4마디로 주된 비트 만 소개하는 수준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올 하반기 최고 히트곡으로 꼽히는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After LIKE)는 노래 시작 후 불과 3초 만에 '또 모르지 내 마음이 저 날씨처럼 바뀔지'하고 가사가 시작된다.

이는 이들의 전작 '러브 다이브'에서 '망설일 시간은 3초면 되는 걸'하는 구절과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K팝 팬들에게신선함을 안긴 바 있다.

또 다른 유명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과거 댄스곡도 발라드처럼 노래 길이가 길었을 때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노래 일부를 편집 하는 것을 두고 신경전도 왕왕 벌어졌다"며

"노래 자체가 짧아지니 그러한 걱정은 없어 져 좋기는 하다. K팝의 격한 안무를 소화하려면 시간이 짧을수록 유리하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 강동원 '퇴마사' 변신

차기작 영화 '빙의' 크랭크인

강동원〈사진〉·허준호 주연의 영화 '빙의' (가제)가 최근 본격 촬영에 들어갔다고 배 급사 CJ ENM이 19일 전했다.

'빙의'는 가짜 퇴마사 천박사가 강력하게 빙의된 소녀 사건을 의뢰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김홍태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 OILI

강동원이 귀신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귀신같은 통찰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천박 사 역을, 허준호가 무당의 영력을 사냥하는 범천 역을 맡았다.

천박사의 파트너 강도령 역에 이동휘가, 천박사와 오랜 인연을 맺은 황사장 역에 김 종수가 캐스팅됐다.

'기생충'과 '헤어질 결심' 등에서 조감독 을 맡은 김성식 감독의 연출 데뷔작이다.

/연합뉴스



####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년을 자란차가버섯을 엄선

1 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